

마키아벨리즘 성향과 성차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호동¹, 이장한²

요 약

본 연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자가 성별에 따라 진실보다 선의의 거짓말에서, 특히 이기적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 암묵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총 507명에게 기만조종 척도를 실시하여 마키아벨리즘 성향(고/저)과 성별에 따라서 4집단 91명을 선별하였다. 실험은 암묵적 연합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실험 1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 실험 2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의도(이타적 또는 이기적)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1의 결과, 남성과 마키아벨리즘 고성향자 집단이 선의의 거짓말과 암묵적으로 강한 연합을 보였으며, 실험 2는 이타적 선의의 거짓말과 연합을 보인 마키아벨리즘 저성향의 여성을 제외하고, 다른 세 집단 모두 이기적 선의의 거짓말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었다. 이는 남성과 마키아벨리즘 고성향자 집단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남성은 마키아벨리즘 성향과는 관계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 이기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으나, 여성은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경우에만 이기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여성은 마키아벨리즘 성향에 따라 이기적 선의의 거짓말의 의도에 대해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은 마키아벨리즘 성향에 관계없이 이기적 선의의 거짓말의 의도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주요용어 : 마키아벨리즘, 선의의 거짓말, 성차, IAT.

1. 서론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은 정치적 영역에서 책략과 사기는 필수불가결 하다고 본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모호한 상황에서 발뻘하거나 타인을 조종하고 속이는 능력이 뛰어난 성격특성을 갖고 있다(Geis, Moon, 1981; Muris et al., 2017). 특히 거짓말을 할 때에 덜 불안해하며 상대방을 더 자주 쳐다보고 거짓을 말할 때에도 진실해 보인다(Exline et al., 1970). Jonason et al.(2014)은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을수록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자주 하며, 이러한 성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착취적인 대인관계 전략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남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속

¹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E-mail : lhd8382@gmail.com

²(교신저자)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clipsy@cau.ac.kr

[접수 2021년 11월 15일; 수정 2021년 12월 17일; 게재확정 2021년 12월 20일]

임 행동을 하기 쉽다고 하였다(Rushton, 1985; Jonason et al., 2009; Jonason, Girgis, Milne-Home, 2017). 또한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실용주의적 관점과 정적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Arvan, 2013), 이는 도덕적 상황에서 자신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치판단을 중심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Cantarero, Van Tiburg, Szarota, 2018).

특히 마키아벨리안의 도덕성을 3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도덕적 영향력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도덕적 의식으로 이들의 특성을 들 수 있다(Asao, Buss, 2016). 도덕적 영향력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특정 정보를 사용하여 가장 큰 이득 또는 착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뜻하며, 도덕적 영향력은 다른 사람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켜 최대 이득을 얻고, 도덕적 의식은 다른 사람의 도덕적 판단을 전략적으로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대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이들의 도덕성은 교묘하고, 고차원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적으로 Life History Theory(생애사 이론)관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보았다(Rushton, 1985). 남자는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착취적인 사회-성적 전략을 사용하여 여자보다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Jonason et al., 2014), 또한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HEXACO모델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모델의 (H)에 해당하는 정직/겸손 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고 있다(Ashton, Lee, 2005; Lee et al., 2013). 이들은 타인을 조종하는 기술이 뛰어나며, 모호한 상황에서 속이거나 발뺌 하는데도 뛰어나다(Geis, Moon, 1981). 또한 Hare의 4요인 모델에서는 대인 관계적 조종(거짓말, 자기 자신에 대한 과장, 강요와 부정직함)과 냉담한 정서(두려움 및 죄책감 결핍)가 마키아벨리즘을 포함한 어둠의 성격 3요소(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모두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Hare, 1996, 1999; Go, Lee, 2019).

선의의 거짓말이 타인을 위한 긍정적 의도의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Feldman, 2009a; 2009b), 마키아벨리즘 성향자가 타인을 위한 긍정적인 의도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다. Erat, Gneezy(2012)는 선의의 거짓말 역시 그 의도가 무조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이익 혹은 손해 관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이기적인 검은 거짓말(Selfish black lie)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며, 둘째, 악의적인 검은 거짓말(Spiteful black lies)은 상대방과 나 자신 모두 손해를 입으며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셋째, 이타적 선의의 거짓말(altruistic white lie)은 나의 이득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고, 넷째, 이기적 선의의 거짓말(pareto white lie)은 나와 상대방 모두가 이득을 얻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자는 타인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거짓말에 대해 허용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속이는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자는 자신을 위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 역시 자주 한다고 하였는데(Jonason et al., 2014), 선의의 거짓말을 함으로서 이들의 전략적인 특성이 드러난다(Jones, Paulhus, 2011). 따라서 마키아벨리즘 성향자의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나의 이득도 함께 고려하는 이기적 선의의 거짓말(pareto white lie)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때 죄책감, 수치심, 긴장과 같은 불쾌한 각성상태를 수반하여 표정 및 태도 등 외적으로 드러난다(Lee, Lee, 2015; Woo et al., 2019). 그러나 마키아벨리즘 성향자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감정을 생성하고 감정조절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적 반응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에

거짓말을 하는 동안 죄책감을 숨길 수 있다(Christie, Geis, 1970; Deak et al., 2017). 이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즘이 높을수록 외현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대방의 눈을 자주 쳐다보며, 진실되게 보여 거짓 믿음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Exline et al., 1970). 특히 이들은 정서적으로 숙련되어 있어 자신의 의도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심리적 공감 반응을 할 때 낮은 피부전도 반응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정서적 냉담함을 생리적 측정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Massey, Byrd, 2016). 이들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감춰진 내현적인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사용할 수 있다(Greenwald, McGhee, Schwartz, 1998). IAT는 마음속에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 범주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실험 도구이며, 대상에 대한 반응 시간과 정확성을 측정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인상관리에 대한 염려 없이 측정할 수 있다(Fazio, Olson, 2003).

선행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전적 암묵적 연합검사(Autobiographical-IAT)를 사용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감별하였다(Agosta, Pezzoli, Sartori, 2013). 그러나 법정 장면에서 목격자 진술과 관련하여 목격자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 개개인의 성격적 특성과는 무관하였으며 실험 대상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성격 특성에 따라 선의의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을 한 동기에 대한 태도는 알 수 없었다. 또한 각 개인의 자전적인 기억에 비추어 실험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의 성격에 따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어떻게 갖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IAT-자극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뇌파로 선의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실험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일상적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자극을 구성하였다. 자극 구성은 선의의 거짓말의 상황을 4가지로 제시해서 사용하였는데, 외모, 창의적인 활동, 상호작용과 관련된 활동, 3자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하였다(Rigoulot, Fish, Pell, 2014).

2. 연구 방법

2.1.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 C대학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에 ‘성격특성 파악을 위한 심리학 실험자 모집’ 공고를 내고, 507명(남성 196명, 여성 311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기만조종척도를 실시하였다. 전체 마키아벨리안 척도 평균 점수는 72.69(SD=7.44)로, 본 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 ± 1 에 해당하는 평균 80점 이상, 65점 이하의 집단으로 마키아벨리안 고성향자 및 저성향자 집단을 구분하였고, 총 91명(남성 41명, 여성 50명)의 피험자를 실험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선별된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23.29세(SD=2.36), 여자 22.22세(SD=2.01)였다(Table 1).

Table 1. Mean (SE) of Manipulativeness Scale score for the study samples

	High Machiavellian tendency	Low Machiavellian tendency
Male (n=41)	81.46(4.21) (n=23)	64.78(2.24) (n=18)
Female (n=50)	80.87(3.62) (n=28)	64.32(2.42) (n=22)

Table 2. White lie situation about hair styles

A cut hair in a trendy style. B passing by saw A's changed hair style. But B thought it didn't suit A. At that time, A asked B if his hair style suits him well. B said to A, "(Hair style suits you well)".

2.2. 실험 설문지

1) 기만조종척도(Manipulativeness Scale: MS)

Gozna, Vrij, Bull(2001)이 개발한 척도로써, 마키아벨리즘과 사회적 기만성의 성격특질을 결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총 2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m, Lee(2010)가 번안한 한국판 MS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참가자를 선정하는데 이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5이었다.

2.3. 실험 도구

1)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연구에서는 의미상 구별되는 두 개의 상위범주와 두 개의 특질범주로 구성된 양극성 암묵적 연합검사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2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 실험 당 10분가량 소요되어 총 20분 동안 진행하였다. 실험1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화면에 제시되는 진실("A야 헤어스타일 안 어울려") 혹은 선의의 거짓말("A야 헤어스타일 잘 어울려") 문장을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상위범주에 분류하게 하였다. 분류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화면 중앙에 'x'가 제시되어 다시 분류하게 하였다. 본 과제의 상위범주는 표적범주(진실, 선의의 거짓말)와 속성범주(참, 거짓)가 제시되는데, 특정 표적범주와 속성범주 사이의 암묵적 연합이 강할수록 화면에 제시된 문장을 더욱 빠르게 분류한다고 가정한다(Greenwald, McGhee, Schwartz, 1998). 실험 1은 연습시행 3회, 본 시행 4회를 실시하였는데, 연습시행은 화면 상단에 표적범주 혹은 속성범주 중 하나만을 제시하고 화면 중앙의 문장을 분류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시행은 화면 상단에 표적범주와 속성범주를 각각 하나씩 짝지은 쌍을 제시하고, 화면 중앙의 문장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문장은 참가자가 자극을 분류할 때까지 화면에 제시된다. 상위범주로 '진실+참', '선의의 거짓말+거짓' 쌍을 제시하는 시행과 '진실+거짓', '선의의 거짓말+참' 쌍을 제시하는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가 '선의의 거짓말+거짓' 시행보다 '선의의 거짓말+참' 시행에서 더욱 빠른 반응을 보인다면, 암묵적으로 선의의 거짓말이 참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Figure 1).

실험 2는 실험 1을 마친 후 곧바로 실시한다. 실험2는 선의의 거짓말 의도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화면 중앙에 제시된 이기적 선의의 거짓말 문장("이득을 얻기 위해") 혹은 이타적 선의의 거짓말 문장("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을 상위범주에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문장은 참가자가 자극을 분류할 때까지 화면에 제시된다. 실험2의 표적범주는 '이타적 거짓말'과 '이기적 거짓말'이며, 속성범주는 '참'과 '거짓'이었다. 연습시행 후 본 시행은 상위범주로 '이타적 거짓말+참'과 '이기적 거짓말+거짓' 쌍이 제시되는 이타적 의도가 참이라는 시행과 '이타적 거짓말+거짓'과 '이기적 거짓말+참'이 제시되는 이기적 의도가 참이라는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가 어떤 시행에서 더욱 빠른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그 시행의 의도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참가자가 실험 1과 2를 마친 뒤 디브리핑을 하고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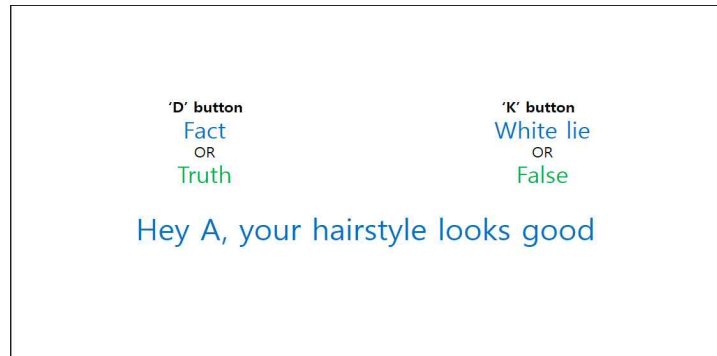


Figure 1. Task 1 IAT: attitude towards white l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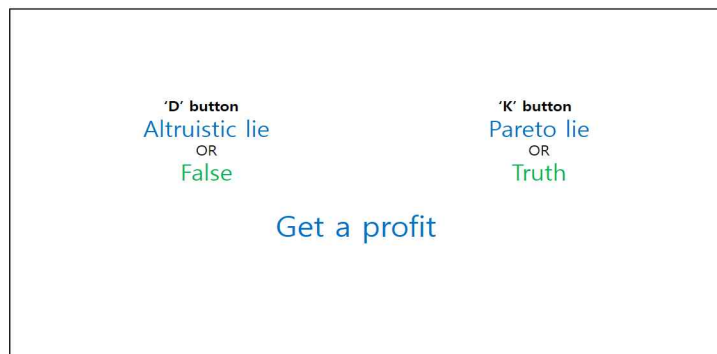


Figure 2. Task 2 IAT: attitude towards white lies's intentions

2.4. 실험 절차

연구 참가자는 실험실에 도착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험자가 제시하는 네 개의 선의의 거짓말 상황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Table 2). 네 개의 선의의 거짓말 상황은 사전연구에서 조사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선의의 거짓말(헤어스타일, 발표, 선물, 윗사람)로 구성하였다. 참가자가 거짓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한 후, 실험 1과 2의 암묵적 연합검사 후에 최종적으로 디브리핑을 하였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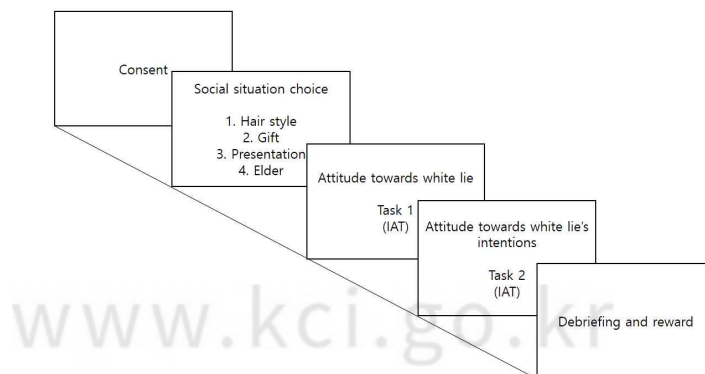


Figure 3. Procedure of experiment

2.5. 자료 분석

마키아벨리즘 성향과 성별에 따라 선의의 거짓말(실험 1)과 선의의 거짓말 의도(실험 2)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2(집단: 마키아벨리즘 고성향, 마키아벨리즘 저성향) × 2(성별: 남성, 여성) 2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에는 윈도우형 SPSS 22.0을 사용하였다. Greenwald, Nosek, Banaji(2003)이 제안한 대로, 반응시간이 300ms 이하인 시행이 전체 시행의 10% 이상이거나 반응시간이 10,000ms 이상인 시행은 분석에서 제외했고, 틀린 반응을 한 경우 오류 패널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 과

3.1. 실험 1

실험 1의 종속측정치로는 ‘선의의 거짓말+참’시행에서 ‘선의의 거짓말+거짓’시행의 평균 반응시간을 뺀 D-IAT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즉, D-IAT값이 작을수록 선의의 거짓말에 암묵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 91명 중 반응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 수행을 보여 일관된 주의집중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D-IAT값이 표준편차 ± 2 범위를 벗어난 인원(5명)을 제외하고 변량 분석한 결과, 마키아벨리즘 성향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1,82)=2.77, p=.66, \eta^2=.002$), 성별에 따른 주효과($F(1,82)=5.37, p<.05, \eta^2=.052$)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주효과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82)=4.92, p<.05, \eta^2=.044$)(Figure 4).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암묵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마키아벨리즘 고성향자가 저성향자에 비해 선의의 거짓말에서 암묵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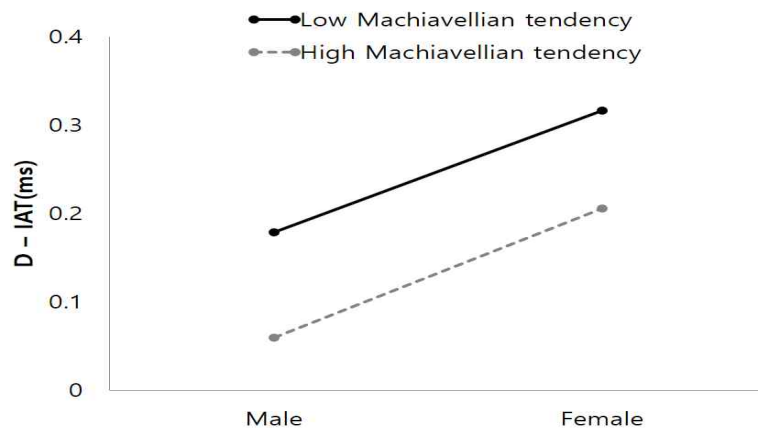


Figure 4. Comparison of white lie D-IAT score between all group

3.2. 실험 2

실험 2의 종속측정치로는 ‘이기적 선의의 거짓말+참’ 시행에서 ‘이타적 선의의 거짓말+참’ 시행의 평균 반응시간을 뺀 D-IAT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즉, D-IAT값이 작을수록 이기적 선의의

거짓말에 암묵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 91명 중 반응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 수행을 보여 일관된 주의집중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D-IAT값이 표준편차 ± 2 범위를 벗어난 인원(4명)을 제외한 87명을 변량 분석한 결과, 마키아벨리즘 수준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며($F(1, 83)=8.79, p<.05, \eta^2=.096$). 마키아벨리즘 집단에서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1, 83)=5.61, p<.05, \eta^2=.063$).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마키아벨리즘 고성향 여성이 저성향 여성보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의도가 이기적 의도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었지만($t(47)=-3.35, p<.001$), 남성 집단의 마키아벨리즘 고/저 성향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36)=5.15, p=.61$)(Figure 5). 즉, 여성 마키아벨리즘 저성향자 집단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의도가 이타적 의도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었으며, 그 외 모든 집단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의도가 이기적 의도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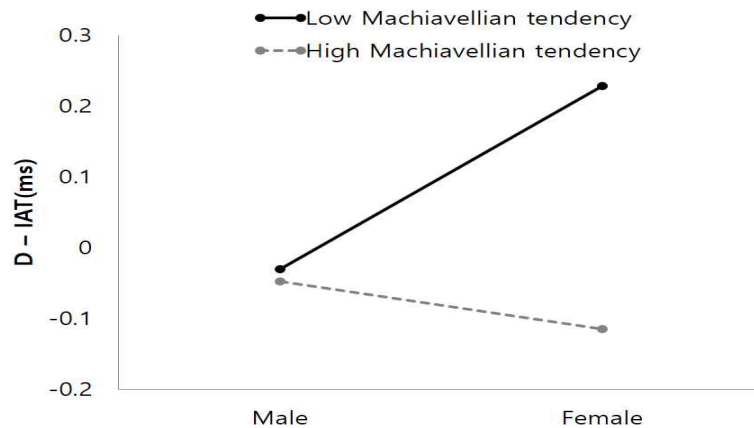


Figure 5. Comparison of white lie intentions D-IAT score between all group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마키아벨리즘 성향과 성별에 따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암묵적 태도의 차이를 암묵적 연합검사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실험 1에서는 마키아벨리즘 성향과 성차에 따른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마키아벨리즘 성향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향과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선의의 거짓말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을수록 선의의 거짓말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생존을 위해 이득을 취하고자 거짓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성별과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결합하면 마키아벨리즘 고성향자 남성이 선의의 거짓말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았다(Rushton, 1985).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의 유형은 이기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의도에 따라 성별과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결합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Erat, Gneezy, 2012).

따라서 실험 2는 선의의 거짓말의 의도인 이기적 혹은 이타적 거짓말에 대한 마키아벨리즘 성향과 성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험 2의 결과는 선의의 거짓말 의도에 대해 마키아벨리즘 성향

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마키아벨리즘 저성향자 여성은 고성향자 여성에 비해 이타적 거짓말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시사되며, 남성은 선의의 거짓말 의도에서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득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Harrison, Summers, Mennecke, 2018), 여성의 경우 이득을 추구하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낮을수록 이타적 거짓말의 경향성을 보였고,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을수록 이기적 거짓말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마키아벨리즘의 수준과 관계없이 이기적 거짓말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더 사용하는 경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자면, 남성 및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의도를 살펴보면 남성은 마키아벨리즘 성향과 관계없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이기적인 의도에 긍정적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은 마키아벨리즘의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이기적 의도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낮은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이타적 의도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암묵적 연합과제를 통해 선의의 거짓말 의도를 이기적과 이타적으로 구분하여 마키아벨리즘 성향과 성별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탐지, 선별 및 구분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Lyons et al., 2017), 선의의 거짓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의도에 대해 확인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의의 거짓말에서 이기적 의도와 이타적 의도를 구분하여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수준에 따른 성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거짓말 관련 연구 분야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마키아벨리즘 성향에 관한 거짓말 탐지 연구 영역에서 거짓말의 의도 및 성별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마키아벨리즘 성향자들은 인상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속이는 것에 익숙하며(Hart, Breeden, Richardson, 2019), 자기 보고식 검사지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의식적인 암묵적 연합과제를 통해 실험 참가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내현적 태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이익 혹은 손해의 개념에 따라 이타적 혹은 이기적 거짓말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더해 이기적 검은 거짓말 혹은 악의적 검은 거짓말과 같은 거짓말 유형을 통해 선의의 거짓말과 비교한다면 결과의 의미를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대해 4가지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실험을 시행하였다(Rigoulot, Fish, Pell, 2014). 그러나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적 요소에 따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적 시나리오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면 연구 결과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집단과는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생 집단은 전반적으로 높은 지적 수준과 함께 세련된 사회기술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며, 이와 같은 점이 마키아벨리즘 성향과는 별개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자의 권력유지, 냉정한 경영전략, 조종하는 행동과 같은 하위 특성을 세분화한다면 이들의 거짓말에 대한 의도를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Agosta, S., Pezzoli, P., Sartori, G. (2013). How to detect deception in everyday life and the reasons underlying i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7, 256-262. DOI: <https://doi.org/10.1002/acp.2902>
- Arvan, M. (2013). Bad news for conservatives? Moral judgments and the Dark Triad personality traits: A correlational study, *Neuroethics*, 6(2), 307-318. DOI: <https://doi.org/10.1007/s12152-011-9140-6>
- Asao, K., Buss, D. M. (2016). The Tripartite Theory of Machiavellian Morality: Judgment, Influence, and Conscience as Distinct Moral Adaptations, *The Evolution of Morality*, 3-25. DOI: https://doi.org/10.1007/978-3-319-19671-8_1
- Ashton, M. C., Lee, K. (2005). Honesty Humility, the Big Five, and the Five 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73(5), 1321-1354. DOI: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5.00351.x>
- Cantarero, K., Van Tilburg, W. A., Szarota, P. (2018). Differentiating everyday lies: A typology of lies based on beneficiary and motiv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4, 252-260.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8.05.013>
- Christie, R., Geis, F. (1970). *Studies in Machiavellianism*, New York: Academic Press.
- Deak, A., Bodrogi, B., Biro, B., Perlaki, G., Orsi, G., Bereczkei, T. (2017). Machiavellian emotion regulation in a cognitive reappraisal task: An fMRI study,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17(3), 528-541. DOI: <https://doi.org/10.3758/s13415-016-0495-3>
- Erat, S., Gneezy, U. (2012). White lies, *Management Science*, 58(4), 723-733. DOI: <https://doi.org/10.3758/s13415-016-0495-3>
- Exline, R. V., Thibaut, J., Hickey, C. B., Gumpert, P. (1970). Visual interaction in relation to Machiavellianism and an unethical act, In R. Christie and F. L. Geis (Eds.), *Studies in Machiavellianism*(53-75), New York: Academic Press.
- Fazio, R. H.,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297-327.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4.101601.145225>
- Feldman, R. (2009a). *The Liar in Your Life: The Way to Truthful Relationships*, New York: Hachette Book Group.
- Feldman, R. (2009b). *Liar: The Truth about Lying*, UK: Virgin Books.
- Geis, F. L., Moon, T. H. (1981). Machiavellianism and de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4), 766-77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1.4.766>
- Go, E. B., Lee, J. H. (2019). A latent profile analysis on juvenile probationer's callous unemotional trai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1), 49-62.
- Gozna, L. F., Vrij, A., Bull, R. (2001).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on perceptions of lying in everyday life in a high stake situ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7), 1203-1216.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219-1](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219-1)
- Greenwald, A. G., McGhee, D. E.,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5.2.197>
-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1), 25-54. DOI: <https://doi.org/10.1177/0093854896023001004>
- Hare, R. D. (1999). Psychopathy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Psychiatric Quarterly*, 70(3), 181-197. DOI: <https://doi.org/10.1023/A:1022094925150>
- Harrison, A., Summers, J., Mennecke, B. (2018). The effects of the dark triad on unethical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3(1), 53-77. DOI: <https://doi.org/10.1007/s10551-016-3368-3>
- Hart, W., Breeden, C. J., Richardson, K. (2019). Differentiating dark personalities on impression manag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7, 58-62.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9.04.030>
- Jonason, P. K., Girgis, M., Milne-Home, J. (2017). The exploitive mating strategy of the dark triad traits: Tests of rape-enabling attitud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6(3), 697-706. DOI: <https://doi.org/10.1007/s10508-017-0937-1>

- Jonason, P. K., Lyons, M., Baughman, H. M., Vernon, P. A. (2014). What a tangled web we weave the dark triad traits and decep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0, 117-119.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4.06.038>
- Jonason, P. K., Li, N. P., Webster, G. D., Schmitt, D. P. (2009). The dark triad: Facilitating a short term mating strategy in m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3(1), 5-18. DOI: <https://doi.org/10.1002/per.698>
- Jones, D. N., Paulhus, D. L. (2011). The role of impulsivity in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5), 679-682.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1.04.011>
- Kim, M. K., Lee, J. H.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anipulaten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B), 1339-1349. (in Korean).
- Lee, K., Ashton, M. C., Wiltshire, J., Bourdage, J. S., Visser, B. A., Gallucci, A. (2013). Sex, power, and money: Prediction from the dark triad and honesty - humil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7(2), 169-184. DOI: <https://doi.org/10.1002/per.1860>
- Lee, Y. N., Lee, J. H. (2015). Effects of the Morality and Mental Contamin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6B), 3297-3308. (in Korean).
- Lyons, M., Croft, A., Fairhurst, S., Varley, K., Wilson, C. (2017). Seeing through crocodile tears? Sex-specific associations between the dark triad traits and lie detection accur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3, 1-4.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7.03.008>
- Massey-Abernathy, A., Byrd-Craven, J. (2016). Seeing but Not Feeling: Machiavellian traits in relation to physiological empathetic responding and life experiences, *Adaptive Human Behavior and Physiology*, 2(3), 1-15. DOI: <https://doi.org/10.1007/s40750-016-0041-0>
- Muris, P., Merckelbach, H., Otgaar, H., Meijer, E. (2017). The malevolent side of human nature: A meta-analysis and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dark triad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2), 183-204. DOI: <https://doi.org/10.1177/1745691616666070>
- Rushton, J. P. (1985). Differential K theory: The sociobiology of individual and group differ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4), 441-452. DOI: [https://doi.org/10.1016/0191-8869\(85\)90137-0](https://doi.org/10.1016/0191-8869(85)90137-0)
- Rigoulot, S., Fish, K., Pell, M. D. (2014). Neural correlates of inferring speaker sincerity from white lies: An event-related potential source localization study, *Brain Research*, 1565, 48-62. DOI: <https://doi.org/10.1016/j.brainres.2014.04.022>
- Woo, J. M., Lee, Y. N., Kim, S. M., Jeon, H. K., Eum, J. H., Song, H. R., Kim, K. H., Lee, J. H. (2019). The effect of providing and receiving social support on guil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6), 3207-3220. (in Korean).

The Effect of Machiavellian Tendency and Gender Differences on Implicit Attitudes for White Lies

Ho-Dong Lee¹, Jang-Han Lee²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ender differences in people with Machiavellian tendency to use white lies before truth for their own benefits and whether they have positive implicit attitudes toward Pareto white lies. A total of 91 participants were selected depending on their gender (male/female) and Machiavellian tendency (high/low) among 507 participants who were conducted in the Manipulativeness Scale. After showing the virtual scenario related to white lies, participants were asked to picture themselves within the scenario.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experiment was conducted over two sessions. The purpose of experiment 1 was to measure implicit attitudes toward white lies, and 2 to measure implicit attitudes about intention (Altruistic or Pareto) of white lies. The results of Experiment 1, Male group and high group with Machiavellian tendency showed implicitly strong association with white lies. In Experiment 2, female group with low Machiavellian tendency showed implicitly strong association with altruistic white lies and all other groups had implicitly strong association with Pareto white lie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group with high Machiavellian tendency had positive attitude toward white lies. In intention of white lies, males with both high/low Machiavellian tendency indicate selfish intention while females with only high Machiavellian tendency indicate selfish intention.

Keywords : Machiavellian tendency, white lie, gender difference, IAT.

¹Master's Degr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Republic of Korea. E-mail : lhd8382@gmail.com

²(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Republic of Korea. E-mail : clipsy@cau.ac.kr

[Received 15 November 2021; Revised 17 December 2021; Accepted 20 December 2021]